

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 스스로 궁핍함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같이 번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니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는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서 가장 부요한 분인데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고후 8:9).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주리고 머리 돌 곳조차 없어 광야에서 주무시는 등 가난한 길을 가심으로 친히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지요.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가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부요해집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빛 가운데 산다면 시험 환난과 궁핍이 올 수 없고 설령 온다 해도 신속히 물러갑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혼이 잘된 만큼 이 땅에서도 만사행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보다 부요한 것입니다.

3.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에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이 정착해 살았는데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 많은 기독교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의 유전과 율법의 틀과 의에 맞추어 예수님을 판단 정죄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지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일을 훼방하고, 단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 교회나 주의 종을 판단 정죄하거나 시기 질투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9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서는 이들을 향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 부르며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면 자칭 유대인일 뿐이며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두 드러납니다(마 13:49-50).

굳이 마지막 심판 날이 아니라 해도 그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진리를 좇아 사랑하고 화평하며 선한 말과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이와 반대되는 시기, 판단, 정죄, 미움, 분쟁 등이 나타난다면 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하며 교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무리를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단의 회'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점차 사랑이 식고 기도의 불이 꺼지며 결국 부흥이 멈춥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단의 회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자리잡

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진리의 말을 듣고 별 생각없이 한두 마디 동조했다고 합시다. 악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말이 결국 거짓된 소문을 만듭니다. 온전히 악의 모습을 벗어 버리기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는 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악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입술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순간에도 단지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반대하는 말을 내면서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근히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별다른 생각없이 함께 대화하다가 한두 마디 동조하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진리의 말이라면 동조하지 않으며, 나아가 상대를 진리의 말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직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늘 선한 것만 보고 들으며 선한 것만 말하고 생각한다면 사단의 회가 교회 안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열린 해외 연합대성회



이슬람 국가를 뒤흔들며 중동 선교의 문을 연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2000년 파키스탄 라호르 시에서 열린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이 성회는 이슬람 국가에서 성회가 열렸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회교도들의 압력과 위협으로 주 정부의 갑작스런 집회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전혀 요동치 않고 찬양하며 믿음을 내보였다. 이어 하나님께서 예비한 S.K.트레슬러 장관(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을 통해 굳게 닫힌 철문이 열려 예정대로 성회가 진행됐다. 수많은 회교도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놓임받는 등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S.K.트레슬러(전 문화체육부장관) 우리 교회 방문



▶ 인도 기독교 사상 최대, 최다, 최고의 기록을 남긴 인도 연합대성회. 2002년 인도 첸나이 시 마리나 해변에서 열린 이 성회는 타밀라두 주 정부의 '강제 개종 금지 규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3백만 명이 참석했다. 소경이 보게 되고, 병어리가 말하며, 에이즈가 치료되는 등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힌두교도들이 치료와 개종하는 역사가 넘쳤다.



힌두교 국가 인도에서 연인원 3백만 명이 참석한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



간증 행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감사함이 넘치는 6월...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으로 나아가는 시간, GCN이 준비한 총명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세요.

주요프로그램

- ✓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 ✓ 특선영화 '뉘바디스 / 나사렛 예수'
- ✓ GCN TV설교 이수진 목사의 '팔복'
- ✓ 어린이 3D 애니메이션 '당나귀 울리의 모험'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1577-2073
MANMIN TV